

전자도서의 수서 및 유통에 있어서 인식 전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thinking of Acquisitions & Services of e-Books

곽 동 철(Dong-Chul Kwack)*

목 차

- | | |
|--------------------------------|-----------------------------|
| 1. 서론 | 4. 3 전자도서 관련 기술들의 본질에 대한 분석 |
| 2. 전자도서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 4. 4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 |
| 3. 전자도서의 가격 결정의 구조 | 5. 전자도서의 공동구매에 대한 문제점 |
| 4. 전자도서의 기술에 대한 통합 요구의 오류 | 6. 바람직한 전자도서의 수서 및 유통 전략 |
| 4. 1 판독기 및 저작권인증관리기술 통합 논의의 오해 | 7. 결론 |
| 4. 2 산업 구조상 유통기술 통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 | |

초 록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은 전자도서(e-Book)를 하나의 새로운 도서관자료의 유형으로 수용하여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자도서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과 전자도서의 가격결정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에서 주장하는 전자도서 관련 기술 통합의 오류를 (1) 판독기 및 저작권인증관리기술 통합 논의의 오해, (2)산업 구조상 유통기술 통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 (3)전자도서 관련 기술들의 본질에 대한 분석, (4)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결과들을 근거로 전자도서의 공동구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아울러 바람직한 전자도서의 수서 및 유통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S

Libraries manage e-Books as a new kinds of library materials and provide library users with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Initially, this study was intended to be an investigation into several misconceptions surrounding e-Books and their pricing structure. This study is also concerned with the fallacies of unifying e-Book techniques from four perspectives: (1)the misunderstandings related to unifying viewer and DRM, (2)the misconceptions about unifying service techniqu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3)the analyses of essence of e-Book techniques, (4)the settlement of users' inconveniences through continuous technique refinement.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ollaborative purchase of e-Books, and presents several ideal strategies for their acquisition and service.

키워드: 전자도서, 저작권인증관리, 수서, 공동구매
e-Book, DRM, Acquisitions, Collaborative Purchase, Library Materials

-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wackdc@chongju.ac.kr)
논문접수일자 2003년 11월 16일
계재확정일자 2003년 12월 9일

1. 서론

국내 전자도서 시장의 규모는 2002년 말 현재 약 100억원 수준으로서, 1조 2천~3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단행본 시장에 비해서는 약 1/100 수준이지만, 전자도서 산업은 매년 2배 이상의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초기의 전자도서 시장은 벤처 붐과 함께 여러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2000~2001년도에 전자도서 관련 회사들이 대부분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였다. 그러한 고전 속에 “e-book은 없다”는 식의 성급한 비판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자도서 산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판독 및 유통기술의 개발이 마무리되고, 전자도서 콘텐츠의 지속적인 축적이 이루어지는 등 관련 인프라가 성숙되면서, 전자도서 산업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도서 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전자도서를 향유할 수 있을 만큼 국내 인프라가 성숙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가입자 수가 국민의 25% 수준인 1천만 명에 이르고, 이동전화 가입자가 3천만 명을 상회하면서 세계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전자도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전자도서 업계의 노력에 의해 콘텐츠와 솔루션, 단말기 등과 같은 전자도서 산업의 3대 요소가 고른 발전을 이루면서 그 성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식정보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콘텐츠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전자도서는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즉, 최근 들어 지식정보인프라를 갖춘 학교 및 도서관에서 전자도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산업의 발전을 즐기듯이 여러 업체들이 다시 전자도서 산업에 참여하면서 점점 더 활기를 띄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전자도서 산업 전반에 자리를 잡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이 그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이 새로운 정보매체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도서를 도서관 자료로 다루고, 나아가 도서관이 이러한 새로운 유형으로 생산되는 우리 문화유산을 창출하는 견인차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회사와의 상호 관계를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전자도서 전반에 자리를 잡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을 도출하고, 그러한 인식들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며, 둘째, 최근 도서관계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도서의 공동구매에 대한 사례들을 조사·분석하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국가 문화유산의 창출과 보전에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자도서회사와 도서관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체제의 개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전자도서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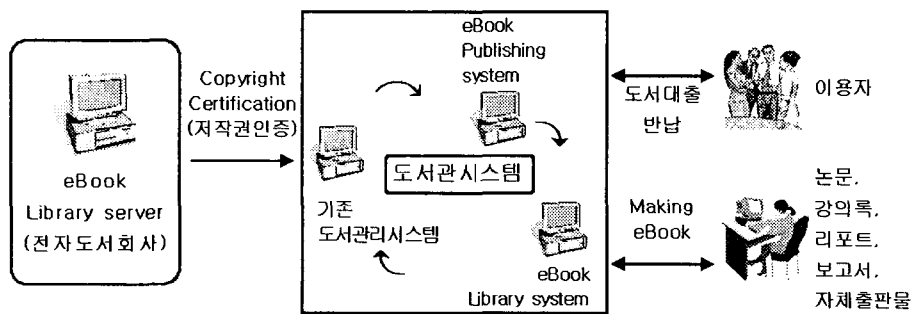
전자도서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은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도서관 간단히 설명하면 종이도서에 담겨 있는 지식과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개인용컴퓨터(PC)나 휴대용정보단말기(PDA), 휴대폰, 디지털 텔레비전 등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도서관은 도서관의 입장에서 다른 정보매체에 비해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Lucia Snowhill, 2001).

전자도서관은 판매를 위한 수록내용이 컴퓨터 서버에 파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종이도서나 광디스크(CD-ROM)와는 달리 소장 공간의 문제를 덜 수 있고, 오프라인 유통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훼손이나 분실의 염려가 없으므로 24시간 관외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다(성대훈, 2002). 아울러 전자도서관은 저작권인증관리(DRM) 기술을 통해 개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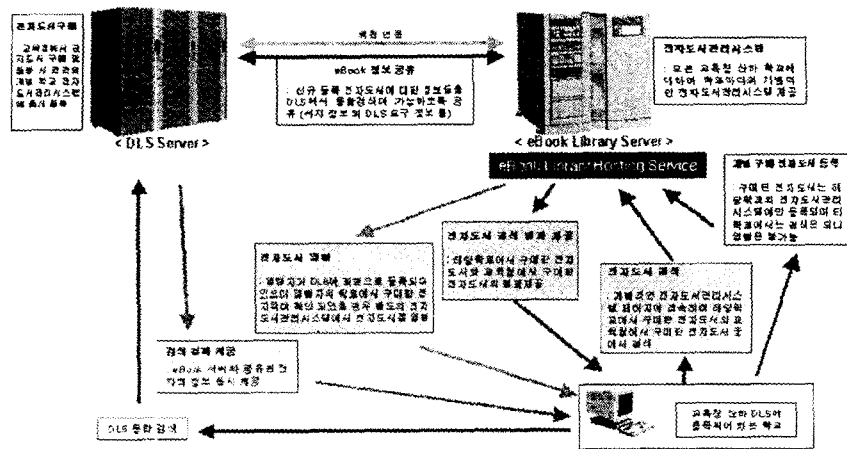
서가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회원제/스트리밍 방식으로 '접속' 서비스만 가능한 다른 유형의 디지털콘텐츠와는 달리, <그림 1>과 <그림 2>의 사례에서와 같이 '접속'(access)과 '소장'(ownership)이 모두 가능한 디지털콘텐츠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곽동철, 2002; Lynn Silipigni Connaway, 2001).

여기서 <그림 1>은 SI(System Integrated) 패키지 방식에 의해 구축한 전자도서관 서비스시스템이다. 이는 전자도서관을 제작하여 유통하는 회사가 전자도서관 서비스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운영시스템을 도서관에 일괄 제공하는 것이다(와이즈북토피아, 2003). 즉, 도서관이 직접 전자도서관 서비스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에서 인증을 받은 이용자라면 누구나 도서관 외부에서도 전자도서관의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도서관이 전자도서관 서비스시스템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스템의 관리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그림 2>는 최근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각각의 학교에서 구축



<그림 1> SI 패키지 방식의 전자도서관 서비스시스템 유형



〈그림 2〉 교육청 전자도서 서비스 운영 개념도

되는 서지정보를 모두가 공유하기 위하여 기획되어진 것이다. 이는 디지털도서관서비스(DLS)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자도서 서비스 운영 개념도이다. 즉, 이 그림에서와 같이 각 학교에서는 각각 원하는 전자도서들을 수서하여 구매하고, 구매한 전자도서들을 DLS에 등록하며, DLS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검색하고, 검색된 자료 중 전자도서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도서를 구매한 학교의 교직원 또는 학생에게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자료로서 많은 장점과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전자도서에 대해 도서관의 사서와 정보서비스기관의 종사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제기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구분하면, (1) 도서관에 공급하는 전자도서의 기본적인 가격 결정 문제, (2) 전자도서의 판독기(뷰어), 저작권인증관리, B2B 유통플랫폼의 통합 문제, (3) B2B 시장에서 전자도서의 공동구매 문제, (4) 기타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

원을 살펴보고, 미시적으로는 전자도서가 도서관자료로서 자리를 잡고, 거시적으로는 도서관이 문화유산의 수집 및 보존 기능뿐만 아니라 창출지원 기능까지 발휘하여 질 좋은 전자도서의 유통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자도서 산업이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3. 전자도서의 가격 결정의 구조

지금까지 도서관은 아날로그 지식정보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및 유통에 대부분의 관심을 집중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도서관은 아날로그 지식정보자원은 물론이고 디지털 지식정보자원과 관련하여 전기한 관심 사항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은 이용자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품질의 지식정보자원을 창출하는 데에도 건인

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한 나라의 도서관문화는 그 나라의 출판문화 및 지식정보의 유통문화와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출판문화나 지식정보의 유통문화 역시 제대로 자리를 잡고 발전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물론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집단들 사이에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문화유산의 창출이라는 면에서 공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전자도서 시장에서 부분적으로 상대 우위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전기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전자도서 산업의 발전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 경우에 전자도서는 지금보다 그 유형 면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품질 면에서 더욱 개선되어 도서관자료로서의 비중이 증가될 것이다(Peter Evans, 2000).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도서관은 전자도서 관련 이해관계 집단 가운데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시장질서의 형성을 조율할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자도서의 가격 결정은 이를 제작하여 유통하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자나 출판사인 저작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즉, 도서관은 저작권의 소멸 등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전자도서에 대해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흔히 저작권자들은 해당 도서가 도서관에 전자도서로 납품이 되면, 종이도서는 물론 추

가 납품이 불가능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이들은 종이도서를 납품하는 수준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전자도서 콘텐츠를 도서관에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은 '기본 사용자 수'를 상정한 전자도서의 도서관 납품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도서 산업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자와 출판사 등 저작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산업이다(양춘화, 2002). 다시 말하자면, 전자도서회사는 저작권자들이 저작물에 대한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그 납품가격의 산정에 '기본 이용자 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자도서회사가 '기본 이용자 수'를 '5-사용자', '10-사용자' 등으로 조건을 명시하여 도서관에 전자도서를 납품하고 있다. 이것은 저작권자들이 결정한 납품 가격이며 방식이기 때문에, 전자도서회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다.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기본 이용자 수' 단위로 전자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B2C 가격 기준에 비해 높게 느낄 수 있지만, 저작권자 입장에서 전자도서가 디지털자원이란 특징 때문에 B2C 가격과 B2B 가격을 다른 기준으로 확정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즉, 종이도서는 일일이 가져와서 반납하고 다시 예약하여 기다린 후에 대출해 가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전자도서는 어디서든 자신이 원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로서의 전자도서는 영구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이용자 측면에선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도서관 입장에서 비용절감 및 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4. 전자도서의 기술에 대한 통합 요구의 오류

4.1 판독기 및 저작권인증관리기술 통합 논의의 오해

최근 전자도서 관련 발표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일부 논자들은 전자도서의 판독기(뷰어)와 저작권인증관리(DRM)기술 및 유통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만 전자도서 문제를 고려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근거로는 전자도서회사들마다 서로 다른 판독기 및 유통기술(솔루션)을 채택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자도서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전자도서의 판독 및 유통기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전자도서의 제작과정을 살펴보고, 그 후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4.1.1 전자도서의 제작과정

일반적으로 전자도서는 아래와 같이 (1) XML 문서작성 과정, (2) 컴파일 및 전자도서 파일 생성 과정을 거쳐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제작되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도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XML

문서작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미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에서는 전자도서의 문서 표준을 발표하고, 그 표준은 KS X 6100으로 공인하고 있다(한국전자책컨소시엄, 2001). 이에 따라 저작권자는 자신의 도서를 국가 표준에 맞춘 XML형식의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현재 이 작업은 주로 전자도서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대행업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작업은 향후에 출판사가 직접 담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자도서의 내용이 표준화된 XML방식으로 작성되면, 여러 전자도서회사들은 이를 공통으로 그 제작에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이 단계에까지 오면 XML 표준문서의 역할은 충분히 다한 셈이다. 즉, 하나의 표준화된 문서가 작성되면, 여러 전자도서회사들은 자신의 기술력을 나타내기 위한 간단한 추가작업을 실시하여 판매용 전자도서를 제작할 수 있다.

둘째, 이제 XML 문서를 가지고 전자도서를 제작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는 전자도서의 제작을 위한 파일변환(컴파일) 및 전자도서의 파일생성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XML 문서 자체는 아직 판매할 수 있는 전자도서로 볼 수 없다. 즉, 각각의 전자도서회사는 XML 문서를 기술적 능력에 따라 판매용 전자도서로 재포장해야 한다. 이 과정은 저작자들의 의도대로 판독기에 도서를 나타낼 수 있는 '구현'기술이 집약된 부분으로서, 판독기술(전자책 기술, 혹은 솔루션)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도서의 상품화 및 포장 과정에서, 표준 문서에 포함된 그림이 제대로 나타나고, 음성과 동영상이 제대로 구현되고, 저작권인증관리기술이 적용되도록 하는 그 회사 고

유의 결정적인 기술이 발휘되고 있다.

4. 1. 2 XML 문서와 전자도서 파일의 혼동
전자도서와 관련하여 파일변환 이전의 XML 문서와 각 회사 고유의 기술로 상품화된 전자도서의 차이를 잘못 이해하는 데에서 많은 오해가 비롯되고 있다. 여기서 XML 문서가 출판사에 넘기는 원고지에 작성한 원고라면, 전자도서는 출판과정을 거쳐 서점에서 판매되는 일반도서로 이해해야 한다. 즉, XML 문서는 사람이 작성하여 교정을 보고 논리적인 구조를 지니도록 컴퓨터상에 설계된 지식정보로서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는 당연히 문서작성 표준이 필요하다. 만약 그러한 표준이 없다면 XML 문서의 공급자는 각 전자도서회사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XML 문서를 중복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단계인 전자도서의 구현 및 유통기술의 적용 부분은 지금까지와 다른 각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전기한 바와 같이 XML 문서가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XML로 작성된 문서를 바탕으로 화면상에 그 내용물을 구현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즉, 컴퓨터 관련 기술은 나날이 발전 중에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도서의 구현 모습을 표준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현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이는 모든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표준화할 수 없고, 모든 가전회사들의 상품을 표준화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영역은 각 전자도서회사별로 기술력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연유

로 전자도서회사는 각기 이러한 상품화 및 포장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자도서는 이 부분에서 상품으로서 품질의 차별성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4. 1. 3 판독기에 대한 오해

전자도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오해는 판독기에 대한 것이다. 판독기는 기계어로 상품화시킨 전자도서를 다시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판독기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라기보다도 상품화된 전자도서 파일을 열어 보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가장 큰 역할은 허가되지 않은 이용자가 파일을 열람하고자 할 때 열리지 않고, 허가를 받은 이용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보안기술인 저작권인증관리기술로서 전자도서 기술의 핵심이다(한국전자책컨소시엄, 2001). 이 기술은 수많은 해커들의 공격에 대항하고자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개발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전자도서의 유통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저작권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전자도서회사가 저작권인증관리기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더욱 견고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시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통기술 및 저작권인증관리기술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집집마다 서로 다른 현관문의 열쇠를 통합하여 같이 쓰라는 것이고, 그것을 공개하라는 것은 생존의 근거마저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데이터나 파일의 구조

가 아닌 기술 그 자체를 표준화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4. 2 산업 구조상 유통기술 통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

4. 2. 1 저작권자와 전자도서회사의 명확한 구분 필요

전자도서 산업의 참여주체는 다음의 <표 1>에서와 같이 저작권자와 제작 및 유통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자는 저자와 출판사를 지칭하는데, 저작권자가 전자도서 산업의 핵심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 표에서와 같이 전자도서회사는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떠한 전자도서도 제작하여 유통시킬 수 없다. 실제로 저작권자는 다양한 전자도서 제작기술 가운데 자신의 작품을 전자도서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회사를 직접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어느 전자도서회사가 저작권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저작권료의 정산을 투명하게 하는

가를 기준으로 삼고(이호신, 2002), 나아가 자신과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거래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도서의 제작 및 유통회사는 많은 저작권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좀더 질적으로 우수한 제작도구, 판독기, 강력한 저작권인증관리기술, 유통기술, 효율적인 상거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기술개발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 회사는 투명한 저작권의 정산 및 저작권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4. 2. 2 전자도서 산업의 품질경쟁의 역학구조

지금까지 전자도서 산업은 전기한 품질경쟁을 기반으로 부분적으로 부침이 있었지만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도서의 최대 수요처인 도서관과 정보서비스기관은 물론이고 일부 사람들이 그 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인식을 도외시하고 막연히 '판독기 및 유통기술 등의 통합'을 요구

<표 1> 전자도서의 산업 부문별 구조

전자도서 저작권자 (저자, 출판사) 제작 및 유통/서비스 회사 선택	제작 전자도서 표준	전자도서 유통/서비스 회사 경쟁력 요소
어떤 판독기(뷰어)가 가독성이 높은가? 어떤 회사의 편집능력이 우수한가? 어떤 회사의 판독기가 멀티미디어 기능의 탑재가 용이한가? 어떤 회사의 저작권인증관리 (DRM) 기술이 완벽한가? 어떤 회사의 수익모델이 탁월한가? 어떤 회사가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을 수행하는가? 어떤 회사가 신뢰할 만한가? 등	KS X 6100 (우리나라 표준)	판독기(가독성, 편집능력)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HCI기술) 이동성(PDA/무선 인터넷 서비스) 압축기술(빠르고 신속한 다운로드) DRM 솔루션(저작권인증관리) 효율적인 상거래 솔루션(B2C/B2B)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수익창출) 투명한 정산 저작권자들과 신뢰관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전체 전자도서관사들을 통합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전자도서의 품질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서, 전자도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심지어 붕괴로 몰아가는 것이다.

소위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합된 전자도서관 기술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그동안 뒷짐을 지고 때만 기다리고 있던 회사들이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 투자에는 관심도 없이 대자본과 대형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를테면, 대기업, 서점, 도서관 납품기업 등이 전자도서를 유통한다고 나서서 기존의 전자도서관사들을 고사시켜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우선 기술력이 부족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은 회사들의 입장에서 무임승차의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경쟁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그 자체로 기술개발을 멈추게 되어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 창출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전자도서 산업의 붕괴와 국제경쟁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4. 2. 3 전자도서 산업의 주체가 저작권자라는 인식

전자도서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등이 선정하는 것은 저작물이지만 유통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이 산업의 주체는 저작권자라는 것이며,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주체도 저작권자이라는 것이다. 셋째, 저작권자가 자신의 신뢰와 판단에 따라 유통플랫폼을 선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자도서

산업의 역학구조를 고려할 때, 도서관 등에서 저작물에 대한 유통플랫폼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도서관 등이 유통플랫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를 선정할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자도서의 판독기, 저작권인증관리, 유통시스템 관련 기술들을 통합한다는 것은 전자도서관사의 존재성을 부인하고, 자본주의 시장의 경쟁 논리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전자도서 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관련 기술들이 통합된다면, 각 회사들의 경쟁력은 영업력, 사실은 가격 경쟁력 밖에는 없게 되며, 결국 그 손해는 저작권자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저작권자의 전자도서 제작 기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4. 3 전자도서 관련 기술들의 본질에 대한 분석

4. 3. 1 판독기 및 저작권인증관리기술 등의 회사별 고유성

전자도서는 디지털 파일로 제작된 후, 온라인 접속 상태에서 판독기, 저작권인증관리기술, 전자도서 웹 서비스 기술을 유통망으로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제대로 제작된 다음, 정당한 이용자에게 그 유통과정에서 복제나 해킹을 당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자도서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망을 선택한다. 그리

고 이용자는 가독성이 높으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과 개인정보단말기(PDA)로의 이동이 원활한 판독기와 신속한 유통망을 가진 회사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다.

도서관의 서비스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B2B 유통시스템인 전자도서전용도서관시스템은 저작권관리시스템을 웹으로 연결하여 이용자 수의 관리나 불법이용자 단속 등을 하는 저작권 보호시스템을 불법적인 복제를 방지하는 저작권보호인증서버와 연결하여 철저한 저작권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도서회사들은 각각 제공한 전자도서에 대한 제반 관리를 위해 전자도서전용도서관시스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자도서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모두 저작권에 대한 관리와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4. 3. 2 경쟁 속에 발전하는 판독기 및 유통 기술

현재 디지털 지식정보자원과 관련된 어떤 기술이든 간에 표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데이터 형식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동영상 파일 가운데 MPEG 등이 있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파일이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이다. 그리고 표준화된 동영상 파일을 열람하는데에는 하나의 판독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window media player)와 리얼플레이어(real player) 등 여러 종류들이 있다. 이 가운데 이용자는 스스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판독기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와 리얼플레이

어 관련 회사들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 결과 더욱더 좋은 판독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예로서 웹 브라우저를 들 수 있다. 인터넷 초기에 익스플로러와 네비게이터라는 두 웹 브라우저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합 브라우저가 개발되어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익스플로러가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화된 브라우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운영체제도 현재 윈도우, 리눅스 등 다양하지만, 누구도 이것들을 통합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워드프로세서인 한글과 MS Word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3. 3 위협스러운 저작권인증관리기술의 통합 발상

도서관을 비롯한 이용자 집단은 저작권인증관리기술 때문에 하나의 판독기로 다른 회사의 전자도서를 열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통합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디지털 데이터의 호환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저작권인증관리기술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상관없이 저작권인증관리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면,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저작권인증관리기술의 알고리즘을 모든 회사가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방안이 있고, 다른 하나는, 특정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인증관리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

우선, 저작권인증관리기술의 알고리즘을 공유하는 방안은 많은 전자도서회사 관계자들이 알고리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그 알고리즘이 유출될 우려가 높다. 이를테면, 전자도서가 해킹된다고 가정하면, 그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너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특정 회사가 저작권인증관리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방안은 한 회사가 저작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 더욱이 저작권인증관리기술은 전자도서의 서비스 방식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그 회사의 서비스 방식과 내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 회사가 이를 개발하여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전자도서회사로 하여금 결국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강구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것처럼 기술적인 완전함을 제공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회사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4. 3. 4 판독기, 저작권인증관리기술, 유통기술 통합의 부정적 결과

우리나라에서 전자도서 서비스의 핵심적인 기술 요소들인 판독기, 저작권인증관리기술, 유통 관련 기술들이 인위적으로 통합된다면, 전자도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전자도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그 다음, 전자도서의 이용자인 우리 국민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오히려 외국의 전자도서회

사는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의 통합 환경 조성은 그 관련 기술의 개발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도서의 제작과 유통 기술이 경쟁요소가 아닌 상황에서 관련 회사들은 그 개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 개발을 맡은 특정 회사의 경우에도 경쟁이 없는 시장 환경에서 신속히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전자도서 관련 기술들의 통합으로 국내 전자도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만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전자도서를 충분히 열람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활성화나 유비쿼터스 환경 등이 도래하더라도 정작 열람할 만한 전자도서가 없어서 오히려 그 시장은 축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 회사들이 우리의 전자도서 시장에 진입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는가? 아마도 우리의 전자도서회사들은 이들과 경쟁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종속될 것이며, 국내 전자도서 시장은 외국 회사들의 독점적인 무대로 변할 것이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의 운영체계에 기본적으로 전자도서 판독기를 탑재하여 주면서, 전자도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시기만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 국민은 우리의 문화유산인 창작물을 읽는 순간에도 외국 회사에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전자도서 관련 기술의 통합 논의는 저작자가 작성하는 데이터 작업의 표준화로

전자도서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그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우리가 전자도서의 표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데이터 형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자도서 콘텐츠의 원래 소스(한글, ms word, quark, 텍스트 등)를 XML 문서로 변환하는 과정이 전자도서를 제작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XML 태그를 전자도서 제작회사들 간에 공통으로 사용한다면, 누군가 한 번의 작업으로 다른 전자도서회사에서는 이미 변환된 XML 문서를 기반으로 보다 더 쉽고 신속하게 전자도서를 제작할 수 있다. 이처럼 전자도서의 제작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서 표준화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우리나라 전자도서회사들이 우리시장을 지키면서, 동시에 세계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워나갈 바탕을 조성하는 것이다.

4. 4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

지금까지 많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판독기 및 유통 기술로 인해 전자도서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술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일부 전자도서회사들은 이용자가 전자도서를 읽기 위해 그 도서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판독기가 설치되고, 곧바로 그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는 원하는 전자도서를 선택하는 과정만 진행함으로써, 별도로 판독기를 내려받는 등의 행위를 할 필요 없이 된다. 즉, 전자도서 이용자는 불편을

느끼지 않고 다양한 전자도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준과 판독기, 저작권인증관리기술, 유통플랫폼 등의 통합에 대한 오류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전자도서와 더불어 대표적인 디지털상품인 MP3(음악)에 대한 경우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곽동철, 2003). 음악에 대한 디지털상품은 MPEG 표준에 의해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MP3라는 대표적인 파일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MP3 파일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 역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인가를 획득한 MP3 파일은 저작권인증관리기술의 적용을 받아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MP3 파일은 특정한 소프트웨어인 MP3 플레이어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다르거나, 저작권자가 또 다른 유통플랫폼을 선정한다면, 그 저작물을 듣기 위해서 또 다시 이에 맞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로서 외국의 디지털저작물이나 광디스크(CD) 상품 등도 모두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저작물이나 유통회사별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공급하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유통플랫폼은 결정하여 그 저작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때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자는 유통플랫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필요한 저작물을 구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표 2〉 디지털 음악과 전자도서의 소프트웨어 통합 비교표

	MP3(음악)	전자도서
표준의 존재여부	존재	존재
표준 제작도구(tool)	광범위한 사용	일부 사용
구동 소프트웨어(S/W)	MP3 플레이어(윈애플 등)	전자도서 판독기(뷰어)
표준파일의 데이터 호환여부	가능	가능
저작권인증관리기술(DRM) 적용 파일의 데이터 호환여부	불가능	불가능
유통/서비스 가능한 플랫폼	저작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은 곳만 유통 가능	(음악과 동일)
유통/서비스 가능한 상품	저작권자에게 인가받은 상품만 유통 가능	(음악과 동일)
소프트웨어 및 유통플랫폼 다양성 여부	다양	다양

5. 전자도서의 공동구매에 대한 문제점

2001년 7월 초,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자도서를 일정한 가격으로 납품 받아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동시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이 때 전자도서회사들은 그 가격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됨으로써 저작권자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워 결국 그 납품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한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도서관계에서 또 다시 전자도서의 공동구매를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 등이 이용자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 절감이란 명목으로 낮은 가격에 전자도서의 납품을 요구하는 공동구매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를 결코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 저작권자는 전자도서회사에 저작물인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그 가격은 저작권자와

의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도서관 등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전자도서 공동구매 정책은 그 가격의 인하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전자도서회사는 이러한 공동구매 방식에 의한 납품을 지속적으로 응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전자도서회사가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저가로 공동구매에 응할 경우, 이것은 명백한 저작권자와의 계약 위반이 되며, 저작권 침해 및 불법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전자도서의 공동구매 정책은 질에 대한 고려가 없는 불평등한 구매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저작권자들이 전혀 팔리지 않을 전자도서들을 그나마 공동구매를 통해 일정한 가격으로 납품한다면 이에 대한 값을 잘 쳐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도서관의 많은 이용자들이 찾는 전자도서들임에도 불구하고 전기한 것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이 계산된다면,

상대적인 손실을 의미함으로, 그러한 조건에서서는 납품을 거부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도서의 거래는 도서관 등에서 저작물의 질을 따져 보지 않고 값을 매기는 것으로서, 헌책을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장서수를 확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파지 취급을 받는 그러한 무책임한 정책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전자도서회사가 저작권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전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만약 전자도서회사가 그러한 파격적인 공동구매에 응하려 한다면, 전기한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을 강요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그 회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 등도 이용자들에게 지식정보를 널리 보급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면서, 지식정보를 생산하는 저작권자를 배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물은 엄연히 저작권자의 사유재산이며, 헌법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는 위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자의 저작의욕은 바로 그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기반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도서회사는 현재까지 종이도서의 도서관 납품 방식이 저작권자와 합의된 방식으로서 별 문제 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전제로 삼아, 그와 동일한 모델로 전자도서의 저작권자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 등에서 추구하는 전자도서의 공동구매 방식 역시 저작권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작권자들은 전자도서에 대한 저작권료

정산이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저작물의 인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6. 바람직한 전자도서의 수서 및 유통 전략

도서관에서는 일반적인 자료 구매 방식과 거의 유사한 절차를 거쳐 전자도서를 구매하고 있다. 도서관 차원에서 전자도서 관련 예산의 책정이 이루어지면, 도서구입 담당자 또는 사서가 구입이 가능한 목록을 열람하면서 예산에 맞춰 필요한 전자도서를 선정한다. 그 후에, 도서관에서는 구입 예정 전자도서의 목록이 확정되면, 견적서를 받고, 약속된 날짜에 전자도서와 함께 판독 및 유통기술을 함께 공급받고 있다. 즉, 전자도서의 구입 및 설치는 “예산 책정 -> 구매리스트 수서 -> 수서된 리스트 발주요청 -> 견적서 수령 및 공급일정 확인 -> 설치 완료”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서관 등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한 후에 전자도서의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첫째, 전자도서회사가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를 얼마나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에, 도서관에서는 콘텐츠의 원래 저작물에 대한 질을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전자도서회사의 도서 보유종수 및 증가율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전자도서회사가 매년 양질의 전자도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를 조사·분석해야 한다. 즉, 이를 위해 전자도서

회사의 규모, 출판사들과의 관계 등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도서관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도서일 지라도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제작 형식을 고려해야 한다(김종필, 2001). 즉, 도서관에서는 가능한 가독성, 편의기능, 모바일이 제공되는 XML 방식의 전자도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전자도서의 유통 면에서 PDF 형식의 전자도서는 용량이 크고 가독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모바일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넷째,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전자도서 판독기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최석두, 2001). 즉, 판독기의 설치가 간단한지? 이용자의 독서를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이 제공되는지? 한번 판독기를 설치하면 동일 회사 제품의 경우에 재설치를 하지 않고 전자도서의 대출이 가능한지? 모바일 장비의 이식성이 좋은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서로 다른 도서관에서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어느 한 도서관에서 다운받은 판독기를 다른 도서관에서도 별도의 다운로드 설치 없이 대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도서관에서는 전자도서서비스시스템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웹상에서 제공되는 유통기술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전자도서회사가 보다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웹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테면, 어린이용 웹을 별도로 제공하는지? 몇 가지 유형으로 디자인된 사이트들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 도서관에서 운영중인 기존 도서관리 프로그램과 연동을 위한 대책을 마

련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Dennis Dillon, 2001).

여섯째, 현재 지역별, 개별 도서관별로 전자도서를 하나의 파일로 인식하여,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공동구매 형식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전자도서회사가 부실한 콘텐츠가 아닌 충실한 콘텐츠의 저작물이거나 지속적으로 새로운 저작물의 전자도서를 유통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조건으로 공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 등은 개별 구매 방식이나 여러 도서관에서 구입하면 일부 유통마진에서 할인을 해주는 일반적인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도서관에서는 전자도서의 저작권인 증관리기술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인증관리를 도서관내에서 서비스할 것인지, 아니면 전자도서회사에서 할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서관내에서 서비스할 경우에 해킹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관리의 어려움과 저작권에 따른 책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즉,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저작물을 공급하는 곳에서 궁극적인 저작권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술적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도서관 등과 전자도서 시장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향후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저작자의 지적 창조물을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새로운 매체에 포장하여 유

통하는 전자도서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도서관은 전자도서 관련 소프트웨어의 통합이나 공동구매 등과 같은 인위적 정책의 수립 및 집행보다는 일반 종이도서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 시장을 자율적 성장에 맡겨야 한다. 즉, 이를 위해 도서관 등은 전자도서 산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첫째, 도서관은 전자도서 산업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이 아닌 저작권자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전자도서 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음으로써 주인공인 저작권자가 언급되지 않고, 일부 저작권자이면서 유통·서비스 회사들이 산업의 중심으로 논의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도서관은 전자도서 산업의 중심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작권자(저자,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즉, 도서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지니지 못한 전자도서회사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그 산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나아가 저작권자라는 주인공을 배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은 전자도서회사들의 유통플랫폼이 아닌 저작물을 대상으로 논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도서의 유통플랫폼은 저작물에 종속되는 것이고, 이는 저작권자와 그 유통회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도서관은 이러한 전자도서 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자도서회사가 보다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욱 훌륭한 양서를 전자도서로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전자도서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도서관 등의 B2B 시장은 저작물의 가격에 대한 정책적 개입보다는, 기본적인 임무인 이용자 서비스와 각 기관별 양서의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을 유도해야 한다(Michael Rappa, 2003). 최근 전자도서 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혼란은 그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도서관 등 기관 시장의 구매 보류와 예산집행정지 등과 같이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고, 올바른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도서 시장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우리의 문화유산이요 지식정보자원인 저작물의 생산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현재 전자도서회사가 전자도서의 문서를 만들고 파일변환까지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저작도구의 배포를 통해 전자도서의 문서작성은 저작권자 쪽에서 맡게 되고, 전자도서회사에서는 파일변환 작업만 수행하는 것으로 영역분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전자도서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표준 전자도서 제작도구(퍼블리셔)와 기존 데이터 변환기술(컨버터)의 개발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즉, 전자도서의 판독기(뷰어), 저작권인증관리(DRM)기술, 유통플랫폼(솔루션)의 통합은 불가능하지만, 국가적으로 제정한 전자도서 표준에 의해 전자도서를 제작하는 소프트웨어의 통합 및 공동 개발은 중요한 사항이다(조지중, 2001). 이는 전자도서의 표준을 정착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 사이에 데이터의 호환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전자도서의 제작은 표준화하고, 그 유통 및 서비스는 개별화하면서, 전자도서에 대한 해킹 등 저작권보호 관련사항은 전자도서회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저작권자에게 보상하는 체제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테면, 국가차원이건 기관차원이건 간에 전자도서전용 도서관 플랫폼을 개발하여, 그 개발된 플랫폼과 판독기에 맞춰 전자도서의 공급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판독기, 저작권인증관리기술, 유통플랫폼의 통일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이 때부터 전자도서회사의 실질적인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저작물의 저작권보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 또는 기관에서 져야 하는 어려움을 수반할 것이다.

여섯째,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많은 부문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문화산업과 지식산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자도서 산업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동참하면서 동시에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이라는 기본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한 제반 행정적, 법적 장치들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도서관은 전자도서가 하나의 도서관자료로서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설비를 확충하고,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이나 공동연구개발 참여를 통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유통하는 회사들은 전자도서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전자도서의 가독력 향상, 문서포맷의 표준화, 고성능 판독기 개발, 저작권 문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해 상기 이해 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회사들은 우수한 전자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작자들이 보다 충실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곽동철. 2003. 전자도서의 수서 및 유통에 대한 인식 전환. 『제41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32-362.
- 곽동철. 2002. 디지털도서관의 전자도서 서비스에 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39(4): 3-17.
- 김종필. 2001. 디지털도서관에서의 E-Book 활용 및 운영 실무. 제4회 디지털도서관 컨퍼런스자료집. 서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등. 153-172.
- 성대훈. 2002. 전자책을 활용한 전자도서관 구축사례. 『2002 한국전자책산업전 Proceedings』. 서울: 한국전자책컨소시엄. 65-76.
- 양춘화. 2002. 『전자책(eBook)과 종이책의

- 수용가치 비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 대학원.
- 이호신. 2002. 『인터넷 시대의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조지중. 2001. 『電子冊市場과 政府의 役割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 최석두. 2001. 전자도서의 새로운 유통방안과 도서관. 『국가과학기술정보도서관 서비스 개통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전자도서관 1-12.
- 최원태. 2003.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전자도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365-385.
- 한국전자책컨소시엄. 2001. 『전자책(eBook) 단말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동 컨소시엄.
- 한국전자책컨소시엄. 2001. 『출판계의 새시장 전자책 출판』, 서울: 동 컨소시엄.
- Connaway. Lynn Silipigni. 2001 "A Web-electronic book(e-book) library: the netLibrary model." *Library Hi Tech*, 19(4).
- Dillon. Dennis. 2001. "E-Books: The University of Texas experience, part 2." *Library Hi Tech*, 19(4): 350-362.
- Evans. Peter. 2000. "E-Books mature." *Biblio Tech Review* : 1-3.
- Hawkins. Donald T. 2002. "Electronic books: reports of their death have been exaggerated," *Online*, 26(4): 42-48.
- O'Leary. Mick. 2001. "Ebook Scenarios," *Online*, 25(1): 62-64.
- Rappa. Michael. 2003. "Business models on the Web," [〈http://digitalenterprise.org/models/models.html〉](http://digitalenterprise.org/models/models.html)
- Snowhill. Lucia. 2001. "E-Books and their future in academic libraries: An Overview." *D-Lib Magazine*, 7(7/80).
- 비로북닷컴. 2002.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한 안내서. [팜플렛]
- 와이즈북토피아. 2003. 와이즈북토피아 전자책도서관. [팜플렛]